벚꽃 만개 10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벚꽃거리에서 시민들이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만끽하고 있다. 이날 광주 지역 낮 최고기온은 21.8도까지 올라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초중고생들 자살 예방 '위기관리위원회' 설치

교육과학기술부가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교에 '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과부는 일선 초·중·고교나 교육청·교육지원청이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위기관리위는 학교장, 학부모 및 지역사회 전문가, 생활지도교사나 보건·상담교사 등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위기학생 지원기관인 위(WEE)센터와 구조센터 요원, 경찰관, 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등을 자문위원으로 두게 된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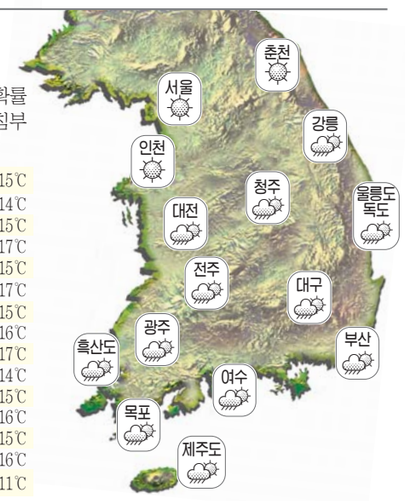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07분 해짐 19시 01분 달뜸 11시 23분 달짐 01시 07분

낮엔 맑아요

흐리고 새벽 한때 비(강수확률 60%)가 조금 내린 뒤 아침부터 개겠다.

광 주	새벽한때비	7/15℃
목 포	새벽한때비	7/14℃
여 수	새벽한때비	9/15℃
나 주	새벽한때비	6/17℃
완 도	새벽한때비	7/15℃
구 례	새벽한때비	7/17℃
해 남	새벽한때비	6/15℃
장 흥	새벽한때비	6/16℃
순 천	새벽한때비	9/17℃
영 광	새벽한때비	6/14℃
진 도	새벽한때비	6/15℃
전 주	새벽한때비	5/16℃
군 산	새벽한때비	4/15℃
남 원	새벽한때비	5/16℃
흑산도	새벽한때비	6/1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5~2.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꽃가루지수
높음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5~2.5m

	밀물	썰물
목포	07:05 19:05	12:40 --:--
여수	01:55 13:54	08:10 20:3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2(화)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날 씨						
최저/최고	3/19	7/21	8/22	9/20	9/20	9/20

도서벽지 교사 현지 거주자 우선 채용

전남교육청, 10년 이상 근무 조건 … 교원평가 시스템 정착

앞으로 전남지역 섬이나 벽지에서 근무할 초·중·고 교사들은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교 교사가 한 곳에서 1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 인사제도도 도입된다.

1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장만채 교육감은 최근 초등교원 연수회 특강에서 "도서벽지 근무 교사의 잦은 이동과 이직 등이 지역민으로부터 전남교육의 불신을 불러오는 이유 중 하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장 교육감은 해당 지역 거주자 교원 선발을 교과부에 건의, 관련법 개정 추진 등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서벽지 배치 교사중 20~30%는 2~3년만에 그만두거나 전출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선 도교육청은 현지 거주자의 채용 조건으로 최소 근무년한을 10년으로 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특정 고교에서 교사가 10년 이상 근무하는 탄력 인사제도도 도입돼 진학·진로지도 등에서 일관성과 효율성 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통 한 학교에서 4년 근무하면 이른바 만근(滿勤)으로 다른학교로 옮기게 된다.

특히 도교육청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원평가 시스템의 정착에 나선다. 교원평가 실시와 성과급 지급의 경우 열심히 가르친 교사가 우대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장만채 교육감은 "성과급 제도를 무력화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성과급 제도가 교사간 협동정신 약화, 경쟁 야기 등을 주장하며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균등배분해 정부와 갈등을 빚은 전교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장, 교장, 직속기관장, 주요 보직간부 등도 전남에 거주하지 않으면 가산점을 주지 않는 방식 등으로 임명하지 않을 계획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가급적 폐교하지 않는 대신 중·고교는 교육의 질을 고려, 적정 규모가 되도록 통폐합을 추진하고 교직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권역별로 관사를 신축, 지원하기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고교 진학상담 교사 54명

'진로교육지원단' 떴다

대학진학지원단도

광주지역 고교생들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교육지원단'이 출범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0일 광주지역 고교 진로·진학상담 교사 등 54명으로 구성된 진로교육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학생 진로 전담 기구가 꾸려진 것은 처음이다.

이 기구는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와 진로교육 컨설팅단으로 나뉘어, 진로교육 연수자료 개발,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교육과 상담 실시, 사이버 진로상담을 추진한다.

고교 진학부장 등으로 구성된 대학진학지원단(단장 양정기 미래인재 교육과장)도 새 진용을 꾸렸다.

정보개발팀, 자료분석팀, 진학컨설팅팀, 진학상담팀 등으로 구성된 진학지원단은 대입 관련 정보 수집, 개발부터 입시 결과 자료 분석, 학교 진학지도 관련 컨설팅 지원, 대교협 콜센터 연계한 각종 상담 활동 등을 맡게 된다.

대학진학지원단은 이달부터 주요 대학 입시요강 설명회, 진학부장 워크숍, 수시·정시모집 대비 설명회 등을 갖는 등 올 연말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12개 전문대 교육역량강화 우수대학 선정

서강정보대학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12개 전문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역량 우수전문대학'은 취업률·재학생충원율·산학협력수익률 등의 지표에 의해 선정되며, 146개 전문대학 중 교육 여건·성과가 우수한 전문대학 80개교(수도권 26개 대학과 비수도권 54개교)가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서강정보대학은 호남권에서 가장 많은 31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4년 연속 우수대학에 뽑히는 것은 물론 3년 연속 지역 전문대 1위의 영예를 안았다.

다음으로는 광주보건대학 29억7400만원, 전남과학대학 28억8800만원, 송원대학 27억1000만원, 목포과학대학 26억4000만원, 조선이공대학 23억2300만원, 순천청암대학 22억3800만원, 순천제일대학 21억1600만원, 동아인재대학 19억5300만원, 전남도립대학 15억6300만원, 조선간호대학 8억7100만원, 기독간호대 6억88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